

자율관리어업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상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2016년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 대상공동체 신청접수



지난해 특별사업비 지원 관련 평가위원회 회의에서 공동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2016년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 대상공동체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2016년 공동체 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된 선진공동체(56개소) 중 선진등급으로 지원 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체(37개소)이며, 신청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다.

신청할 공동체는 공동체 이익을 증진하고 성공모델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사업을 사업계획서로 작성, 지자체를 통해 해양수산부로 신청해야 한다. 해수부는 추후 신청 공동체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 점검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후보공동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별사업비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10억원

2010년부터 19개소에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제3차 자율관리어업 해외연수

10월 31일~11월 4일, 중국 산둥성 일원

한국수산회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산둥성(청도) 어업현장 및 청도 국제수산물박람회를 시찰하는 2016년 제3차 자율관리어업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중국 연수에는 우수공동체 구성원 11명을 비롯,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총 14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 해외연수는 이번 중국연수를 포함, 일본 및 노르웨이 등 총 3회에 걸쳐 실시된다.

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을 통한 어촌의 성공모델 마련을 위해 지난

제13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10월 27~28일, 동해시 동해체육관에서 개최

제13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어업인과 관련기관·단체 관계자 등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간 강원도 동해시 동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 및 어업인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전국의 주요 연안도시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가 주관하고 강원도, 동해시, 한국수산회가 후원한다.

이날 공동체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

제13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2016.10.27(목) ▶ 28(금)
동해시 동해체육관, 동해그랜드호텔

■ 주요행사

- 10.27(목) 동해체육관 기념식, 어촌활천마당
- 10.28(금) 동해그랜드호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례발표, 화랑과의 대화, 시상 및 폐회식

주최: 해양수산부, 주관: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후원: 강원도, 동해시, 한국수산회, 민간연인원

제2회 통영시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 성료

(사)한국자율관리어업 경남 통영시연합회(회장 이남권)는 지난 10월 18일 경남 통영시 용남면에 위치한 통영생활체육공원에서 통영시 관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10월 18일 통영에서 열린 제2회 자율관리어업 통영시연합회 한마음대회 전경.

구성원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통영시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노래한마당, 한마음 체육대회,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통영시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 포상자 명단

□ 통영시장 표창(4명) △자부(천정복) △옥동산내(박정수) △통영연안

자망(김수덕) △육지연화(구쌍봉) □수협중앙회장 표창(2명) △죽도(정지홍) △통영나잠동우회(장안석) □한국수산회장 표창(2명) △유동(김학명) △사랑연안자망(김영민)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 표창(3명) △외지(강철식) △통영이동성구회(박현국) △통영양지패류양식(임효성) □통영수협조합장 표창(2명) △통영낙지연승(성순식) △통영연안통발(이한섭)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 표창(2명) △감성돔자망(이규환) △통영소형외줄낙시(박화연)

국민 눈높이로 다가가는 열린 정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 3.0

더 큰 가치로 돌아옵니다

아직도 어린물고기를 잡아 드시나요?

내일을 위해 어린물고기가 충분히 크고 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한번 알을 낳으면 몇 만 마리의 물고기가 태어납니다.
한번만 참으면 어린물고기는 더 큰 가치가 되어 돌아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수산회, 신규공동체 활성화 교육 실시



한국수산회 김동철 컨설턴트가 자율관리어업 필요성 및 정책방향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한국수산회 (회장 김영규)는 자율관리어업 신규공동체의 우수공동체 벤치마킹을 통한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공동체 활성화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수산회는 지난 9월 신규공동체 4개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10월에도 4개소 (충남 태안군 신규공동체 울포 및 정당2리공동체, 경남 고성군 하일연안통발공동체, 전북 김제군 메기양식공동체)를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 필요성 및 정책방향, 우수공동체 사례발표 및 현장견학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백미리공동체 이창미 사무장이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울포, 정당2리 활성화 교육 단체사진.

자율관리공동체 컨설팅 및 컨설턴트 활동

전문분야 컨설팅 안내

자율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전문분야 컨설팅이 실시되고 있다. 기 참여 공동체 중 특정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희망하는 공동체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가 공동체 현장을 방문하여 공동체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컨설팅이 필요한 주요 전문분야로는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분야, 체험시설

등 관광과 연계한 분야, 공동체 경영분야, 공동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 및 유통분야 등이 있으며,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희망분야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하게 된다.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공동체에서는 언제든지 지자체 수산사무소를 통하여 한국수산회로 신청할 수 있으며, 타당성 검토 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연락처 : 한국수산회 자율관리팀(전화 02-589-4604, 4609)

신규공동체 활성화 교육 및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확산 교육 | 김동철 전남중부담당 컨설턴트

자율관리어업 전남중부담당 김동철 컨설턴트는 지난 9월 1일 충남 서산 가로림공동체 구성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신규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김동철 컨설턴트는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 및 필요성 등을 어업인들의 눈높이에서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교육 대상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지난 9월 19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 해남지원 주관으로 실시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확산교육을 해남지원 관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다.



신규공동체(가로림공동체) 활성화 교육 모습.



전남 해남지원 관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산 교육 모습.

성공한 공동체 현지 순회교육 | 오용대 부산울산담당 컨설턴트

자율관리어업 부산·울산담당 오용대 컨설턴트는 지난 9월 26일 울산 북구 당사공동체 마을회관에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가 주관하는 공동체 지도자 현지 순회교육을 당사공동체 구성원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 및 공동체 구성원 의식개혁 등을 교육하였다.

또, 9월 8일 울산수협 및 신명공동체가 주관하는 '2016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기념하여 신명공동체를 비롯, 울산수협 직원, 울산수협 여성어업인 대표 등 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다대청소를 실시하였다.



'2016년 국제 연안정화의 날'기념하여 신명공동체 및 울산수협에서 바다대청소에 참여하고 있다.



울산 당사공동체, 2016년 공동체 현지 순회교육 모습.

자율관리어업 확산 현지 방문교육 | 천명길 인천경기담당 컨설턴트

자율관리어업 인천·경기담당 천명길 컨설턴트는 지난 9월 9일 인천 중구 덕교공동체 마을회관에서 인천광역시 수산사무소가 주관하는 자율관리어업 확산 현지 방문교육을 덕교공동체(인천 중구) 구성원 5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자율관리어업 발전방향 및 수산자원 관리 실태 등을 교육하였다.



인천 덕교공동체, 자율관리어업 확산 현지방문 교육 모습.

자율관리어업 확산 및 FTA 대응방안 교육 | 임여호 전남동부담당 컨설턴트

자율관리어업 전남동부담당 임여호 컨설턴트는 지난 9월 30일 여수 안포공동체 마을회관에서 안포공동체 구성원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 7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자율관리어업 확산 및 추진방향, 우수공동체 사례 소개, FTA 추진동향 및 국내 대책 등의 주제로 교육하였다.



한국수산회 임여호 컨설턴트가 자율관리어업 확산 및 FTA 추진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남지역 주꾸미 자원관리 해당 어업인간 협약 체결

‘주꾸미 10cm 이하 포획금지’ 자율적으로 협약



충남지역 주꾸미 어업인들이 10월 10일 협약을 체결. 주꾸미 자원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해안의 주꾸미 어획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 오던 충남지역 어업인들이 자원보호 및 공동 이용을 위해 지난 10월 10일 서천서부수협에서 어업인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매년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꾸미 금어기로 정하고 전장 10cm 이하 주꾸미의 포획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자체 기금을 조성, 주꾸미 치어방류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좁은 어장에서 함께 조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구 파손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최근 레저인구의 획기적인 증가와 더불어 낚시어선과 연안자망 어업간 어업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주꾸미 포획 분쟁 해소 및 성장기 주꾸미 자원 보호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이같은 어업인간 협약 체결에는 서해어업조정위원회(공동위원장 김평전, 이홍집)의 중재 아래 충남도와 서천군, 서천군 소형선박협회(회장 김진권), 서천군 도둔리어촌계(계장 김봉규), 서천군 낚시협회(회장 조재용) 등이 참석했다.

경남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전국 지자체 중 처음 ... 공동체 활성화 기대

자율관리어업을 육성·지원하는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처음으로 경남도 의회에서 제정됐다. 경남도의 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윤근의원은 지난 10월 8일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10월 13일 열린 제34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경영 개선, 어업 질서 유지 등을 추진하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자율관리어업은 지난 2001년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수산업 분야 새마을운동으로, 어촌사회와 어업인 인식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김 의원은 소개했다.

실제 자율관리어업이 자리 잡으면서 도내에서는 2001년 9개이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올해 230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같은 공동체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도의 일률적인 지원책만으로는 지역과 해역에 적합한 육성 시책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어 경남도 차원의 조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조례에는 도지사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 도지사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적조나 해파리 구제 등 자연재해에 자율적으로 방제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책무를 명문화했다.

남해 사항 자율관리공동체, 해안쓰레기 정화활동 태풍 ‘차바’에 밀려온 해안쓰레기 처리 ‘총력’



지난 12일 남해군 미조면 사항어촌계가 북항 일원에서 해안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남해군 미조면 사항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정동현)는 지난 10월 12일

미조 북항 일원에서 해안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미조 북항 일원은 태풍 ‘차바’로 인해 폐부자, 폐목재, 일반쓰레기 등이 해안으로 떠밀려와 정화활동이 절실했던 지역이다. 이날 사항공동체 회원 60여명은 해안쓰레기 약 10톤 가량을 수거했으며, 폐부자 등은 별도로 수거해 처리할 계획이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행사 최종 점검회의



제13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관계기관 업무협의 회의 모습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21일 장묘 인 수산자원정책과장 주재로 제13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행사 준비사항 최종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 강원도, 동해시, 한국수산업협동조합,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및 행사 대행업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제18회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 한마당대회 하동공설운동장에서 경남 수산인 화합의 장 마련



하동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18회 경남수산업경영인 한마당대회 개막식 모습.

제18회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가 (사)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회장 이성국) 주최로 10월 7일 하동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는 경남의 수산업경영인 및 가족 1500여명이 참가해 개회선언, 공

로상 표창, 결의문 채택 등 공식행사를 시작으로 수산업경영인의 단합을 위한 체육행사,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의 행사와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시식회 등의 부대행사도 펼쳐졌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경남 수산인상에 전이언 하동군수협장을 비롯한 해양수산부장관상, 경상남도지사상, 경남도의회위원장상, 하동군수상 등 60여명의 수산업경영인 및 수산관계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릉 소돌공동체에서 ‘어선안전의 날 캠페인’ 실시

강릉어업정보통신국은 10월 6일 강릉시 소돌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서 안전사고에 취약한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어선안전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강릉 소돌공동체에서 열린 구명조끼 착용 시연회 모습.

이번 캠페인에는 강릉시, 해양경비안전센터, 전파관리소, 선박안전기술공단, 어촌계 어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해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실습과 통신기 이용법을 숙지하고 안전조업 결의문을 채

택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특히 구명조끼 착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상시착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구명조끼 착용 시연회를 실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거제 외줄낚시 자율관리공동체,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



거제 외줄낚시 자율관리공동체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 모습.

거제시 외줄낚시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채권식) 회원 20여 명은 지난 18일 일운면 공곶이 및 내도 해안변 일원에서 해양쓰레기 2.5톤 가량을 수거했다. 외줄낚시 자율관리공동체는 초록빛바다 1연안 가꾸기 사업의 협력단체로 거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공곶이 및 내도일원 해안변을 책임 관리하는 낚시어업인 단체다.

우수공동체 탐방 / 보성군 동울마을지속관리어업공동체

‘빈매어장을 황금어장으로 탈바꿈’ ... 새꼬막으로 가구당 1400만원 분배



동울공동체 김영인 위원장

청정해역 득량만 중상부에 위치한 동울 마을지속관리어업공동체(위원장 김영인·49)가 2016년 지속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장려공동체에 선정됐다. 인근 율포해수욕장 개발에 따른 마을 전체의 이주로 빚어진 주민간 갈등을 극복하고, 새꼬막 양식 등을 통한 고수익 창출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81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울공동체는 마을어장으로 채묘장을 포함한 새꼬막 어장 6건 83ha 이외에 낙지, 쭈꾸미, 전어 등을 주로 잡는 50척의 소형어선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은 새꼬막 양식의 적지로 손꼽히지만 지속관리어업 참여이전에는 어장을 빈매하여 공동체 소득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1년 공동체 결성 이후 마을어장을 자체 운영하면서 마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특히 “위원장과 사무장, 재무, 감사 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자금관리와 어장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회원간 신뢰를 구축한 것이 이 마을의 성공 원동력이었다”고 김영인 위원장은 밝혔다.

지난해 공동체 회원 평균소득 8500만원

동울공동체는 공동체 결성 이후 마을어장을 옥토로 가꾸기 위해 매월 전 회원이 참여하는 해안청소는 물론 자체 제작한 갈쿠리를 활용해 저질에 묻혀있는 각종 오물까지 수거해 냈다. 또한 조업시 수거해 온 폐어구를 집하장에 모아 처리하는 등 철저한 어장관리와 함께 자원회복을 위해 새꼬막 종패살포에 힘을 쏟았다.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씨를 뿌리는 것이 당연지사. 동울공동체는 자체 결의를 통해 2011년부터 매년 가구당 300만원을 거출, 2억4000여만원씩 종패를 구입해 살포해 오고 있다.



공동체 회원들의 새꼬막 종패 살포 모습.



매월 두차례 실시하는 공동체 청소작업.



자체 제작한 어장청소용 갈쿠리.



새꼬막 판매수익금을 소외계층에 전달하고 있다.



동울공동체의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올해 수하식으로 설치한 채묘시설 철거 후 철망 처리 모습. 공동체는 폐기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어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사업초기에는 고령층(100만원)과 중장년층(400만원)간 거출금액을 차등해 부과했으나, 투자액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을 겪자 지금은 균등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자체자금 이외에도 공동체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정부의 육성사업비 등 지원금을 매년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종패 살포에 투자해 오고 있다.

이같은 자원조성 노력에 힘입어 동울 공동체는 지난해 새꼬막 한 품목만으로 14억여원의 소득을 올려 가구당 균일하게 1400만원을 분배하는 등 부자마을의 기틀을 마련했다. 빈매할 당시 새꼬막어장을 통해 얻는 수익이 2년간 1000~20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소득향상을 거둔 것이다. 현재 공동체는 새꼬막 이외에도 회원들이 낙지, 전어, 쭈꾸미 등을 어획, 지난해의 경우 전체 회원 81명의 평균소득이 8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50여 어가의 평균소득은 1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총회에서 최종 결정토록 했지요.”

김영인 위원장은 종패 살포사업이 공동체의 주요 사업인 만큼 회원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패 선정 뿐 아니라 종패 운반 및 살포시에도 샘플과 일치여부를 공동체 임원들이 일일이 확인 작업을 거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새꼬막 자체 종패생산으로 비용 절감 추진

종패 살포에 해마다 3억원 이상의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공동체에서는 종패를 자체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자체 종패생산을 위해 금년 여름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의 지원을 받아 2000줄 가량의 수하식 채묘시설을 설치했는데, 성공할 경우 100톤 가량의 종패를 확보해 자체물량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0줄의 채묘시설 설치에는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여타 새꼬막 어장에 비해 수심이 5~6m로 깊은 관계로, 기존 시설방식으로 채묘가 어려워 관내 장흥지원에서 특허 개발한 연승수하식 채묘시설을 설치, 현재 생육상태를 관찰 중에 있다. 장흥지원은 채묘기술 뿐 아니라 새꼬막 유생조사를 통한 적기 채묘 등을 통해 동울공동체의 새꼬막 양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동울 공동체는 올해 채묘시설을 통한 안정적인 종패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2017년에는 3000줄로 늘려 자체 물량 확보 뿐 아니라 종패 판매를 통한 추가적인 소득 증대까지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울공동체는 주력 생산품종인 낙지자원 관리를 위해 지난 2011년 보성 낙지통발공동체를 결성을 주도했다. 현재 회원 40명 중 동울공동체 회원이 30명으로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동체 결성이전에는 조업구역 및 어구문제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나 지금은 회원간 회의를 통해 분쟁을 해소해 오고 있다.

이밖에 동울공동체는 공동체 결성이전에는 외지인이 이주해 마을에 거주해도 어촌계원 가입을 불허했으나 지금은 이를 완화해 현재 5명이 추가로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귀어자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공동체에서 새꼬막 판매 수익금 100만원을 보성군 희천면 희망드림협의체에 기탁해 소외계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활동에도 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인 위원장은 “새꼬막은 현안이었던 자체 종패물량 확보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아직 낙지와 전어잡이는 풍흉이 심한 만큼 채포금지 체장 마련 등 이들 어종에 대한 자원회복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불량 인공어초 신고해 주세요!”

해수부, 수산자원조성시설 신고센터 운영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10일부터 일반 국민이 바닷 속에서 상태가 불량한 인공어초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수산자원조성시설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수산자원조성시설은 바닷 속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설치한 인공어초를 말한다. 지자체는 1971년부터 인공어초 시설 설치 사업으로 해수부는 2006년부터 연안바다목장·바다숲 조성 사업으로 인공어초를 설치해 왔다.

바닷 속에 설치돼 있는 수산자원조성시설은 풍랑이나 해수의 흐름 등으로 인해 파손되거나 전복, 매몰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인공어초 관리를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 시도별 각 해역을 구획화해 2~4년 주기로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상태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해수부는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저활동을 하면서 바닷 속으로 들어가는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스쿠버 등 해양레저 활동을 하면서 불량한 시설물을 발견한 경우 수산자원조성시설 신고센터 (http://www.fira.or.kr/fira/fira_050403_1.jsp)로 접수하거나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firasos@fira.or.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설물 관리기관에 전달해 해당 시설물의 보수보강이나 폐어구 제거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불량 시설물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수부, ‘수산자원을 부탁해! UCC’ 공모

11월 18일까지 대국민 공모, 대상에 300만원 수여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수산자원을 부탁해! 손수제작물(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남획, 어린물고기 포획, 폐어구 투기 등 수산자원 고갈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 출품에는 자격제한이 없으며 10월 17일~11월 18일까지 유튜브에 동영상 업로드한 후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주소(URL)를 기입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대상 1개에게는 300만원, 최우수상 1개는 100만원, 우수상 2개는 각 50만원, 장려상 3개는 각 30만원 등 총 7개 작품을 선정해 12월 2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이번 공모전 참여를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수산자원은 온 국민, 더 나아가 우리 후손의 몫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수산자원을 가꾸어서 미래 세대에 풍요로운 바다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5회 해수부 어린이 낚시체험교실

11월 12일 경기도 화성시 웃골낚시터에서



해양수산부장관배 전국민물낚시대회&체험교실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이 낚시에 열중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월 12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웃골낚시터에서 ‘제5회 해양수산부 어린이 낚시 체험

교실’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120명이 참석할 수 있으며, 낚시도구로 물고기를 직접 낚아보고 수질 등 자연환경과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방법과 낚시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 등을 현장에서 교육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와 가족은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사)한국낚시연합 홈페이지(www.fdcfa.co.kr), 전화(044-857-0227) 또는 팩스(044-862-8888)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하며, 참가비는 학생 1인당 1만 원이다.

꽃게잡이 어선에도 내년부터 ‘생분해성 어구’ 보급

해수부, 19일 충남 보령서 어업인 대상 현장 설명회 개최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 어선부두에서 어업인들이 꽃게잡이용 그물을 점검하고 있다.

대게, 붉은대게, 참조기, 물메기 등 8개 어종에 보급하던 생분해성 어구를 내년부터는 꽃게잡이 그물에도 신규로 보급한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도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으로 꽃게자망 어선 108척에 12억6000만원을 비롯해 9개 어종 516척에 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분해성 어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10월 19일 충남 보령에서 꽃게잡이 어업인을 대상으로 생분해성 꽃게자망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해수부는 생분해성 어구의 필요성, 어구 재질 등 사업 내용 및 사업 절차 등을 설명하고, 생분해성 꽃게자망의 성능 제고 및 보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생분해성어구는 조업 중 바다에서

유실되면 2년 후부터 분해를 시작해 3년 후에는 어구 기능을 상실해 유통 어업을 방지할 수 있다. 유통어업 피해 규모는 연간 3800억원에 달하며, 기존 나일론 어구는 썩는 데만 600년이 걸린다.

이에 국립수산물시험원은 2004년부터 생분해성 어구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였다. 현재까지 생분해성 어구 22개를 개발하였고, 이 중 8개 어구는 특허를 획득했다.

꽃게자망은 주로 중국산 나일론 어구를 사용해 왔으나, 국산 생분해 꽃게자망으로 전면 대체할 경우 연간 최대 485억원의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어업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어업인들의 생분해성 어구 사용을 유도해 어장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 부산서 태풍피해 긴급 현장점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계자들과 태풍피해 점검회의를 갖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5일 국제해양레저워크 및 선원간담회 참석 차 부산을 방문한 김영석 장관이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해양수산 피해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날 김 장관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부산항을 포함한 전국 일대의 해양수산시설 등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후 부산청을 비롯한 소속 기관 및 관계 기관 등에 피해의 신속한 복구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번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현재까지 제주·부산 항내 어선원 2명 실종, 통영 등 소형어선·요트 침몰·전복 10척, 여수 엑스포공원 시설 일부 및 부산 방파제 3개소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

명태 '완전 양식 기술' 개발 세계 최초 성공 ... 대량생산 길 열렸다

인공 1세대 7마리 산란 성공 부화 수정란 3만여마리 0.7cm 전후 성장

명태 자원 조성양식 통해 수산업 미래산업화 실현 기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완전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가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명태 인공종자 대량생산의 길이 열리면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통한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실현에도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명태 완전양식기술은 인공적으로 수정란을 생산·부화시켜 키운 어린 명태를 어미로 키워서 다시 수정란을 생산하는 순환체계가 구축되는 기술이다.

해수부는 과도한 어획 등으로 현재 동해안에서 사라진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2014년부터 국립수산물연구원 동해수산연구소, 강원도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강원원주대 등과 함께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어업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수집한 자연산 어미 1마리로부터 수정란 53만립을 확보해 1세대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했다.

해수부 등은 지난해 12월 20cm 정도로 성장한 인공 1세대 명태 중 1만 5000마리를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 방

류하는 한편 특별히 200여마리를 선별해 산란이 가능한 어미(35cm 이상)로 키웠다. 이 중 7마리가 9월 18일부터 산란에 성공했고 수정란 10만여개 중 10월 6일 현재 부화한 3만여마리가 0.7cm 전후로 성장해 마침내 명태 완전양식에 성공한 것이다.

한편 자연 상태의 명태는 만 3년 후에 산란이 가능한 정도로 성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립수산물연구원 동해연구소는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해수 온도를 명태의 적정 수온인 10℃로 유지하는 한편 10℃에서도 생존하는 저온성 먹이생물과 고도불포화지방산(EPA, DHA)을 강화한 고에너지 명태 전용 배합사료를 개발했다. 그 결과 명태의 성숙 기간을 부화 후 3년에서 약 1년 8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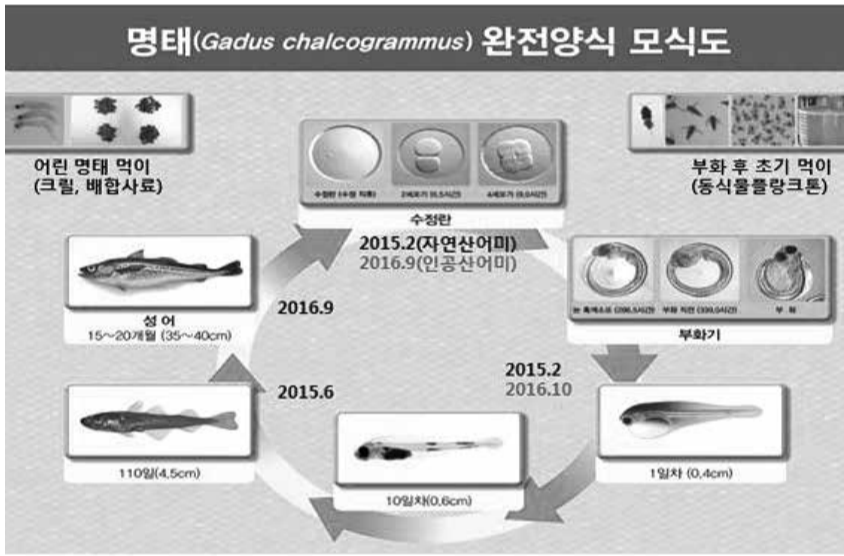
명태 인공양식 기술은 그동안 일본의 명태 1세대 인공종자 생산 외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우리나라가 완전양식기술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하면서 큰 발전을 이룩했다. 이는 지난 6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공한 범장어 완전양식기술 개발과 더불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인공 1세대 사육 모습



성숙한 명태(전장 40cm, 체중 650g)



이번 기술 개발로 그동안 포획이 어렵고 생존율도 낮은 자연산 어미가 아닌 명태 인공종자를 생산·방류함으로써 앞으로 동해안 명태 자원도 회복하고 양식산 명태를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해수부는 앞으로 강원도 등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참여기관과 명태 완전양식기술을 공유하는 한편 명태 종자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시설도 확충해 명태 종자 대량 생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폐사율 줄인 입체형 가두리양식 전복집 개발

은신처 넓고 조류소통 원활 장점... 남해수산연구 생존율 76%로 높여



수산물연구원 연구진들이 전복의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국내 연구진이 전복 양식 환경을 개선해 폐사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전기를 마련했다.

국립수산물연구원은 전복 가두리양식에 사용하는 전복집을 입체형으로 개발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복양식 생산량 추이는 2002년 85톤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 7,114톤으로 획기적으로 늘어 패류양식 총 생산금액의 약 53%를 차지한다.

하지만 대량 생산을 위한 어장밀집과 기존에 사용하던 가두리 내 전복 배양공간(전복집)이 협소해 조류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데다 용존산소 부족으로 인해 양식환경이 악화되면서 전복의 폐사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남해수산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전복 가두리양식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복의 은신처이자 성장에 필요한 전복집의 구조를 입체형으로 개발해 시험 양식어장에 적용했다. 양성 2년생인 전복을 기존 일반형과 이번에 새로 개발한 입체형 전복집에서 1년 동안 각각 키우면서 관찰한 결과 입체형에서의 생존율이 76.5%로 일반형 58.2%보다 18.3% 높게 나타났다.

입체형 전복집은 △직사광선을 차단시키는 면적이 넓어 전복의 은신처가 넓고 △공간 확보가 넓어져 조류소통이 원활하며 ▷해조류 등 잔류먹이가 쉽게 빠져나가 침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철갑상어 해수양식 품종으로 개발

경남도고성공룡영어조합, 국내 최초 결실

내수면 품종인 철갑상어를 해수에서 양식하는 기술이 개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는 제한된 소비시장으로 생산량이 저조한 철갑상어 수요를 늘리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고성공룡철갑상어영어조합과 함께 철갑상어를 해수 양식 품종으로 개발중에 있으며, 현재 결실을 맺고 있다.

이번에 해수 양식종인 철갑상어는 대서양 철갑상어로, 5.3m 370kg까지 성장하는 대형종이다. 이 철갑상

어는 국내에서 최초로 수정란 이식술을 받아 캐나다에서 들여왔다.

따라서 담수에서 부화한 다음 30~45cm까지 성장시킨 후 해수에 순치해 35~55cm까지 키웠다. 현재 해수순치 방법에 대한 혈액분석 등 다양한 시험이 진행중이며 마무리단계에 있다.

사업소는 추가적으로 담수와 해수에서 성장 비교시험을 진행한 후 양식 기술을 매뉴얼화해 철갑상어를 해수에서 양식하고자 하는 어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미더덕, 오만둥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 출시

미더덕, 오만둥이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이 9월 30일부터 출시됐다. 이에 따라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은 총 22개에서 24개로 확대됐다.

이번에 출시된 미더덕, 오만둥이 양식보험은 개별 상품으로 판매하며, 9월 30일부터 주산지인 경남 창원지역

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미더덕과 오만둥이 양식재해보험은 주계약과 시설물손해담보특약으로 구성되며, 해상에서 발생 가능한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및 이상조류(이상 수온, 이상 수질 포함)로 인한 피해를 보장한다.

해수부, 어업관리단 창단 50주년 기념식에서 어업관리 미래비전 발표

제주도에 남해어업관리단 신설 ... 중국 불법어업 막는다



10월 21일 부산 대변향에서 열린 어업관리단 창단 50주년 기념식 모습.

정부가 갈수록 늘어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차단을 위해 내년 4월 제주에 남해어업관리단을 신설해 제주 서남부해역을 중국어선으로부터 지켜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관리단 미래비전’을 10월 21일 부산 대변향에서 열린 ‘어업관리단 창단 50주년 기념식’에서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어업관리단 창단 50주년을 맞아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차단하

는 등 우리 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1966년 10월 20일 우리 어업인 보호를 위해 국가어업지도선 5척과 128명의 인원으로 출범한 어업관리단은 현재 동서해 어업관리단, 제주 어업관리사무소의 편제로 지도선 34척, 정원 602명의 대규모 조직으로 성장했다.

정부는 남해어업관리단 신설과 함께 국내의 어선세력과 불법어업 동향 파악 및 어업관리 공백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해역을 14개 해역에서 18개로 확대 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8년 10월까지 1260억원을 투입해 1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4척을 신조할 계획이다.

또 불법어획물 유통 등 시장 감시·지도를 강화하고, 특히 내년 1월부터 한중어업협정 운영 및 중국어선의 불법어업관리를 위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공동단속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어업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하고 지역 또는 업종 간 어업분쟁 해소를 위한 어업조정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10월 21일 열리는 기념식에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 해양수산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지난 50년간 어업관리단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했다.

정부,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대책 발표



이춘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조정관(가운데)이 10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우리 해경 단속 선박을 충돌해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10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주재로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대책회의에는 외교부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

수산부, 국민안전처 등이 참여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으로는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유관 기관과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폭력사 용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적극

적인 강제력을 행사해 제압하고 도주 시 공해 상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불법 조업선에 대한 몰수와 폐기처분 등 사법처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하고 도주 어선 검거·중국 정부의 재발 방지 촉구 등 외교적 조치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해수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0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부당국의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중국어선의 저항 및 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8년 및 2011년에는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해경 대원이 중국 선원의 폭력으로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지난 10월 7일에는 중국어선의 퇴거·나포작전을 실시하던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충격으로 침몰하는 사건마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우리 어업과 공권력에 심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 행위를 엄정하게 계도·단속하고 처벌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어업인의 어업권 보장을 위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불법조업 및 폭력행위에 적극적이고도 단호하게 대응하여 해양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추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와 중국측에 이송할 예정이다.

수산산업인, 정부세종청사서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

미세먼지·콜레라 논란 속 바다모래 채취 연장 추진에 강력 반발



10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일원에서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회원들이 138만 수산산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바다모래 채취 연장 추진 반대와 불법조업 중국어선 규탄하고 있다.

전국 어민과 수산업계 관계자들이 정부의 바다모래 채취 재개 결정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회원 단체장과 전국 수협 조합장, 어업인 등 3000

여명은 지난 10월 1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38만 수산산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열고 "바다를 무시하고 수산 산업을 천대하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에 △바다모래채취 전면 금지 △콜레라 파동-고등어 미세먼지 사태 재발 방지 △불법 폭력 중국어선 강력 대응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산보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임권 한수총 회장은 대회를 통해 "바다모래 채취, 콜레라, 미세먼지, 그리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바다와 수산산업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더 이상 바다를 팔시하고 수산을 천대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회장은 특히 바다모래 채취 재개 결정에 대해 "육지에는 모래가 없는

가, 육지의 생태계와 환경만 중요하고 바다 생태계와 어민의 삶의 터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건설 현장에 소요되는 골재 수급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서해와 남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했다.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건설골재 부족을 이유로 올해 말까지였던 EEZ 골재채취단지 운영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어민과 수산업계는 바다모래 채취가 수산 동식물의 산란과 생육을 방해하고, 서식장 훼손을 수반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수산회, '가을맞이 수산물대전' 개최

수산물 소비촉진 위해 이마트 전국매장에서 할인 행사



9월 29일 이마트 성수점에서 열린 개막식 행사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 수산단체장 및 소비자단체장이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행사를 가지고 있다.

최근 콜레라 과잉보도 등으로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지속되자 이를 타개하는 한편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수산단체, 소비자단체가 함께 하는 가을맞이 수산물대전 행사가 열렸다.

한국수산회(회장 김영규)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1주일간 이마트 전국점포에서 활광어회, 가을꽃게, 참굴비 등 수산물을 15~40% 할인하는 판촉행사로 펼쳐진다.

9월 29일 이마트 성수점에서 열린

개막식 행사에는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 수산단체장 및 소비자단체장이 참석해 시민들에게 수산물 기념품을 증정하고, 개인위생 안내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행사를 가졌다.

이와함께 한국수산회는 수산물 이력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9월 29일부터 1주일간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비롯, 강남, 영등포, 경기 의정부점 등 5개 지점에서 참굴비, 참전복, 고등어, 멸치 등 4개 이력제 품목에 대한 특가 할인판매를 추진했다.

수협중앙회 '가을 海 신선 海' 수산물축제 개최



김임권 회장이 시민들에게 전어구이를 나눠주고 직접 시식하면서 수산물 소비 동참을 당부했다.

은 9월 29일 시작되는 코리아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 기간과 맞물려 행사를 기획했다.

축제 첫날 수협 본부청사에서 펼쳐진 산지직거래

수협중앙회는 고등어 미세먼지 논란, 콜레라 사태 등으로 급격하게 위축된 수산물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9월 29일부터 한달간 '가을 海 신선 海' 수산물 축제를 개최한 수협

행사에는 꽃게, 전어, 새우 등을 시중 판매가격보다 최대 50%까지 가격 할인 판매하고 활어회초밥 반값, 활어회 20%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2016 수산물 브랜드 대전 개최

한국수산회, 브랜드대전 참여업체 11월4일까지 공모

해양수산부가 경제적 여건이나 홍보 제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2016 수산물 브랜드대전'을 개최한다.

수산물이나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라면 응모할 수 있다. 응모기간은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이며, 한국수산회 홈페이지(www.korfish.c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출품 상품은 11월 4일까지 택배로 한국수산회로 송부해야 한다.

접수된 상품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물브랜드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대상 1개에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금상 1개에 장관상과 상금 150만

원 등 총 6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수산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선 제품은 12월에 개최되는 '2016년 창조경제박람회' 해양수산 홍보관에 전시되며 12월 2일 시상식을 개최한다. 또 수산식품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출품 상품은 공모전 입선 여부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소비 패턴에 맞는 수산물 간편식품 등을 많이 발굴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우수 수산가공식품의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어류양식 동향조사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어류양식장을 운영한 어가수와 종사자수는 감소한 반면 생산량과 생산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어류양식 동향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류양식장을 운영한 어가(사업체 포함)는 1,644가구로 전년 동기 1,737가구 대비 93가구(-5.4%) 줄었다. 이는 소규모 양식어가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어장 합병, 경영주의 고령화 등에 따른 휴(폐)업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어류양식 생산량은 4만 3,816톤으로 전년 동기 4만 2,150

대비 1,666톤(4.0%) 증가했다. 이는 조피볼락, 송어류, 돌돔 등의 집중출하에 기인한다. 어종별로는 넙치류 2만 2,174톤(50.6%), 조피볼락 1만 130톤(23.1%), 송어류 4,553톤(10.4%) 순으로 조사됐다. 어류 생산금액 역시 4,881억원으로 전년 동기 4,077억원 대비 803억원(19.7%) 늘었다. 넙치류 등은 가격이 높게 형성됐고, 돌돔과 송어류 등은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생산금액이 많아졌다. 어종별로는 넙치류 2,853억원(58.5%), 조피볼락 871억원(17.8%), 참돔 309억원(6.3%), 송어류 286억원(5.9%) 순으로 집계됐다.

해수부, 10월 어식백세 수산물 '갈치·낙지' 선정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대표 생선인 갈치와 영양만점 낙지를 '10월의 어식백세 수산물'로 선정했다.



갈치는 여름철 산란을 마치고 월동에 대비하기 위해 늦가을까지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10월을 전후한 시기에 살과 기름이 가장 많이 올라 맛이 좋다. 살이 부드러워 소화 기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 영양식으로 좋고 갈슘, 인, 나트륨 등 각종 무기질이 풍부하며 DHA, EPA 등 불포화지방산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수협생의 영양식으로도 좋다.

낙지의 영양성분은 오징어와 비슷하며, 단백질뿐만 아니라 인, 철분, 칼슘 등 각종 무기질이 풍부하다. 낙지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함량을 보면 주로 타우린, 알기닌, 글리신 등이 많으며, 이외 필수아미노산 함량이 높다.

(사)한국자율관리어업 연합회 소식란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10월 임시이사회 개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는 10월 17일 강원도 동해시 동해체육관에서 10월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주요안건으로는 제13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어업인 숙박업소 및 음식점, 버스임차 현황 등을 최종 점검했다.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10월 임시이사회 회의전경

성공한 지도자 4차 공동체 순회교육 실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는 10월 21일 경기도 양평군 자율관리공동체 사무실에서 양평내수면공동체 구성원 4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성공한 지도자 공동체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강사: 천명길 인천-경기담당 컨설턴트) 및 성공한 공동체 사례(강사: 유재학 연천내수면공동체 위원장)를 교육했다.